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담양호에서 '쓰담쓰담'캠페인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7.07 13:30



[사진 제공=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 담양지사(지사장 김건경)는 7월 3일(목) 담양호에서「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사 대표 ESG 캠페인인「쓰담쓰담」은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의 일환으로, 저수지 인근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가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동참을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사의 대표 사회 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담양호 새마을양식계 회원 15명과 공사 직원 20명이 참여해 담양호 일원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새마을양식계 계장은 공사와 이해관계자가 협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의미있다고 앞으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건경 담양지사는 "담양호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라며 지속적인 환경정화행사와 캠페인으로 깨끗한 담양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